



2014년 개관을 앞두고 한창 공사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수도 광주’ 성공 프로젝트

1 프롤로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번지 자라섬. 말 그대로 자라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곳이다. 7년전까지만 해도 무분별한 모래 채취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비단오면 물에 잠기는 슬모래는 땅이었다. 불과 800m 떨어진 남이섬이 드라마 ‘겨울연가’ 효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과 달리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 자라섬은 전 세계 재즈마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음악의 섬’으로 변신했다. 섬을 찾은 관광객들은 반짝이는 별빛 아래서 돛자리를 깔고 따뜻한 담요로 몸을 감싼 채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들의 연주를 즐긴다. 지난 2004년 10월 첫선을 보인 ‘자라섬 국제재즈 페스티벌’(JI-JF-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 빛어낸 한쪽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재즈’라는 음악장르와 캠프문화를 접목시킨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매년 국내에서 17만 여명(생선유발효과 105억원)이 다녀가는 아시아 최고의 음악축제다. 지난해까지 누적관객수는 약 120여 만 명. 비록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외국 관광객들은 일년전 부터 자라섬 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일정에 맞춰 비행기를 예약할 정도다. ‘가평은 폴라도 자라섬은 알 만큼’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경기도를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이 됐다.

어디 자라섬 뿐인가. 지난 2000년 이후 지역의 문화자원을 특화시켜 고부가 문화 브랜드로 키워낸 도시들이 늘고 있다. 서울 예술의 전당 교향악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춘천마임축제, 대구 오페라 페스티벌, 부천 팔마모니 오케스트라, 제주테디베어박물관, 통영국제음악제, 제천국제영화음악제, 대관령 국제음악제, 춘천 김유정문화제, 원주 박경리 문학공원, 과주 헤이리 예술마을, 용인백남준 아트센터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쯤하여 킬러콘텐츠. 이들의 공통점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불러모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킬러콘텐츠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도시의 문화지형을 넓혔다는 점이다. 과거 ‘문화불모지’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부산은 영화제를 통해 ‘예술의 힘’을 체감하면서 부산비엔날레, 영화의 전당(부산영화제 전용영화관) 등을 탄생시켰는 가하면 대구 역시 오페라와 뮤지컬을 중심으로 공연예술도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문화역량 결집 광주만의 콘텐츠 만들자

더불어 시민들의 문화마인드와 지역의 문화인력을 키우는 데도 힘을 쏟는다. 지난해 문을 연 영화의 전당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을 보여준 바로미터. 영화의 전당은 영화제가 끝난 후에도 연중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화관련 행사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미래의 관객을 양성한다. 또한 세계적인 영화감독들과 함께 하는 영화제작 워크숍과 아카데미를 통해 영화인을 배출하는 등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거듭나고 있다.

대구와 대표 브랜드로 자라섬은 오페라 축제는 평범한 주부를 오페라 애호가로 변

신시킨 일등공신이다. 오페라 축제를 주관하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지속적으로 오페라 클래스, 어린이 오페라, 모닝콘서트 등 일반 시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 덕분이다.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약 16일간의 축제 기간동안 메인행사인 음악제를 비롯 미래 음악꿈나무들을 위한 ‘대관령 국제음악제 음악학교’를 진행한다. 또한 비시즌기간에는 강원도내 시·군지역을 순회하며 클래식 저변확대를 위한 저명음악가들의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①킬러콘텐츠 만들자 ②문화시민 기르자 ③문화인력 키우자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세계적 문화상품으로 키울 방안 모색

바야흐로 광주는 오는 2014년 개관하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전당)의 콘텐츠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무려 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전당의 규모 또한 아시아 최대(3만5000여평)인 만큼 향후 전당의 역할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타 도시의 성공사례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수도’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국내외에서 통하는, 이렇다할 만한 킬러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글로벌 미술축제로 부상한 광주비엔날레와 남종화의 산실 외재 미술관 등이 있긴 하지만 그 뒤를 이을 문화브랜드가 변변치 않다.

다행스럽게도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광주문화재단을 중심으로 3년전부터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오페라 페스티벌 광주, 세계아리랑 축전 등 다양한 대형이벤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김원중 달거리 공연, 무등산 풍경소리, 광주아트페어, 대안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오월길, 윤림동 미술관벨트 등 ‘작지만 알찬’ 공연과 색깔있는 문화현장들이 새롭게 등장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축제를 즐기는 관객은 1만~3만여명에 불과해 킬러콘텐츠로 성장하기까지는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게다가 일부는 충분한 준비를 거치지 않고 전시효과를 노린 과시용 행사여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있는 콘텐츠로 키울 지혜를 모아야 한다.

광주일보보는 창사 6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의 문화역량을 결집시키자는 취지의 기획시리즈 ‘문화수도 광주 성공 프로젝트’를 연재한다. 이 시리즈는 제1부 킬러콘텐츠를 만들자, 제2부 문화시민을 기르자, 제3부 문화인력을 키우자 등 3개의 테마로 나눠 콘텐츠 개발과 문화시민·인재양성에 성공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키워낼 수 있는 아이디어와 대안을 모색한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성과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이를 향유하는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 버려진 섬에서 일약 세계적인 명소로 떠오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신화를 이젠 광주에서도 만들어가자.

/박진현 문화전문기자 jhpark@kwangju.co.kr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통영 국제음악제



대관령 국제음악제

“우울증”의 한방치료!

누구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와 상실을 경험하게 되며, 그 결과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에 젖게 된다. 여기서 우울이란 슬프고 침울한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생리 기능이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부분은 잠시 시간이 지나면 우울한 기분이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된다. 이처럼 좌절 경험후에 일시적으로 경미한 우울 기분을 느끼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며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항상 우울한 상태에서 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점차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우울한 기분이 정제되어 발산하지 못해 일어나는 증상을 총칭하여 우울증이라 합니다. 우울증은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빠져들 수 있는 “인생의 늪”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음의 감기”라고 할 만큼 누구나 인생의 시련기에 경험하게 되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자살과 같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정신장애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 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진료 안내 • **환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신경염, 안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화관 건너편

※ 주차장 완비 ※ 건물 옆 패밀리카키

우울증 원인

(1) 생물학적 원인 - 유전적, 체질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 사회에서의 스트레스
(3) 정신적 원인
① 사려 과다나 실의, 비탄 등 정신적인 충격이 장기를 쇠약하게 하고, 그로 인해 氣血의 순행이 저해되거나 습열·식담 등이 정체되어 흡수·배설이 원활치 못 한데서 우울증이 생기게 된다.
② 정신적인 요인 중에서도 특히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할 때, 즉 욕구불만이 쌓일 때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소심한 사람이나 내성적인 사람에게 흔히 나타난다고 하겠다.

우울증 증상

1. 계속되는 우울, 불안, 혹은 공허감
2. 절망적인 느낌, 염세적 사고
3. 죄책감, 무가치 혹은 무기력감
4. 성생활을 포함하여 한 때 즐거웠던 일이나 취미 생활에서 의욕 및 흥미상실
5. 불면, 아침에 일찍 깨거나 과다한 수면
6. 식욕 감소나 체중 감소, 과식이나 체중 증가
7. 힘이 없고 피로하며 몸이 처지는 기분
8.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기도
9. 초조감, 쉽게 짜증남
10.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의사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
11. 두통, 소화기 장애 또는 만성 통증 등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계속되는 신체 증상이 있을 때

우울증의 치료

치료원칙은 우울증의 병리기전에 의거하여 울결한 氣를 순조롭게 순환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화·담·적의 경중에 따라서 火를 끌어내린다든지 痰 또는 積을 없앤다든지 하는 방법을 배합한다. 한약처방으로는 소간해울탕, 귀비탕, 은당탕, 보혈안신탕, 조위승청탕, 소요산 등이 많이 활용된다. 침치료는 울체된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경희 한의원〉 전 선 형 원장